# 부기스, 아랍, 인도, 유럽의 무역상

Dr Alexander Ressos, TEP
Attorney-at-Law (Switzerland and Germany),
Solicitor (England & Wales and Hong Kong)
Of Counsel, KGP Legal LLC
alexander.ressos@kgplegal.com.sg
www.ressos.com.sg

## 부기스의 계절

18세기에 리아우를 번영으로 이끈 술라웨시의 부기스(Bugis) 무역상들은 다른 리듬을 따랐습니다. 이들 대부분은 8월 말경부터 시작되는 3개월 동안 동풍, 즉 *angin timur*를 타고 도착했고, 11월에 북동 계절풍을 타고 떠났습니다.[1] 1825년에는 와조(Wajo) 부기스 선박 약 120척이 싱가포르에 왔으며, 전년에는 90척이었습니다. 1830년대에는 매년 약 200척의 프라우가 싱가포르를 찾았고, 배마다 약 30명의 선원이 타고 있었습니다.[2]

부기스의 화물은 중계무역항을 거쳐 간 상품의 폭을 잘 보여 줍니다. 그들은 동부 군도에서 극락조, 약용 나무껍질, 자개, 대모갑, 해삼(trepang), 제비집, 백단, 사금, 밀랍, 면화, 커피를 가져왔습니다. 그 대가로 영국과 미국산 화기와 화약, 말라야의 주석, 쇠 칼날, 중국산 생사, 도기, 아편, 벵골산 면직물, 유럽산 모직물과 리넨을 가져갔습니다.[3] 이 교환은 동부 인도네시아의 숲과 산호초를 랭커셔와 벵골의 공장, 그리고 중국의 소비자와 연결했습니다.

© 2026 Dr Alexander Ressos. General information only, not legal, tax or investment advice. No client relationship is created. All Singapore law advice is provided by a duly licensed and regulated firm of Singapore advocates and solicitors only on the basis of an express written letter of engagement. More information at SingaporeIQ.com and ressos.com.sg.

싱가포르에서 부기스 교역은 전통적 형태의 정크 무역보다 훨씬 오래 지속되었지만, 그 중요성은 줄어들었습니다. 1907년에는 부기스 선단이 싱가포르에 전혀 오지 않았습니다. 1973년에는 물물교환을 위해 싱가포르에 정박한 부기스 선박이 20척에 불과했습니다.[4] 도시의 부기스 지구, 그리고 1822년 도시계획(Town Plan)에서 그들에게 배정된 인근 캄퐁글람(Kampong Glam) 지역의 이름은 그들의 중요성을 오늘날까지 전해 줍니다.

## 아랍계 상회

싱가포르에 처음 정착한 아랍인은 1819년에 도착한 팔렘방 출신의 부유한 상인 두 명이었습니다. 1824년 인구조사에서는 인구 10,683명 가운데 아랍인이 15명이었으며, 1871년에는 465명으로 늘었습니다.[5] 이들 가문 대부분은 남아라비아의 하드라마우트(Hadhramaut)에 뿌리를 두고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시작된 무역 디아스포라가 인도양과 군도의 항구들로 퍼져 나갔습니다. 알주니드(Aljunied), 알카프(Alkaff), 알사고프(Alsagoff) 가문이 가장 두드러졌습니다.

아랍계 상인들은 직물, 향신료, 부동산, 해운으로 큰 재산을 모았습니다.[6] 그들의 해운 사업에는 군도에서 메카로 가는 순례자 수송도 포함되었으며, 싱가포르는 이 사업의 중요한 경유지가 되었습니다. 토지에 투자한 덕분에 여러 가문이 도시 최대의 부동산 소유자 반열에 올랐습니다. 상업 공동체에서 그들이 차지한 위상은 1837년 알주니드 가문의 한 사람이 유럽인이 대부분이던 상공회의소(Chamber of Commerce) 회원으로 임명된 데서 드러납니다.[7]

아랍계 상회들은 종교 및 자선 기관도 설립했습니다. 모스크, 학교, 그리고 그 수익으로 이들을 운영하는 기부재산(*wakaf*)입니다. 이 기부재산의 관리는 싱가포르 공익 구조의 역사에서 초기의 한 장을 이룹니다. 그 가운데 몇몇은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이는 제III장에서 중국인의 조상 제사 신탁과 관련해 살펴본, 재산을 장기적 목적에 출연하는 관행이 여러 공동체에 공통된 것이었음을 보여 줍니다.

© 2026 Dr Alexander Ressos. General information only, not legal, tax or investment advice. No client relationship is created. All Singapore law advice is provided by a duly licensed and regulated firm of Singapore advocates and solicitors only on the basis of an express written letter of engagement. More information at SingaporeIQ.com and ressos.com.sg.

## 인도계 상인과 출리아 교역

인도 출신 상인들도 또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었습니다. 1824년 인구조사는 무역상, 뱃사공, 노동자, 군인을 포함해 인도 출신 756명을 기록했습니다.[8] 가장 중요한 상업 집단은 출리아(Chulia)였습니다. 이들은 코로만델 해안 출신의 타밀 무슬림 무역상으로, 오래전부터 벵골만을 건너 아체, 크다, 페낭, 말라카와 교역해 왔습니다. 싱가포르에서 그들은 직물, 향신료, 식료품을 거래하고, 강에서 보트와 거룻배를 운영하고, 환전상으로 일했습니다. 래플스의 도시계획은 상업 중심지 상류 쪽에 그들의 구역을 배정했습니다.[9]

인도계 무역상들은 싱가포르를 남인도와 벵골의 직물 생산지와 연결했습니다. 그곳의 면직물은 군도의 주요 수입품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19세기 후반에는 힌두교도 상인과 금융업자들도 합류했습니다. 그 가운데 타밀나두 출신의 체티아르(Chettiar)는 이 지역에서 가장 중요한 대금업자가 되어, 말라야와 버마 전역의 중국계와 말레이계 무역상, 농장주, 소농에게 자금을 공급했습니다.[10] 싱가포르 신용의 역사에서 그들이 한 역할은 B편에서 다룹니다.

## 유럽과 미국의 무역상

싱가포르의 유럽 상인은 수는 적었지만 가장 큰 자본과 유럽 시장과의 연결을 장악하고 있었습니다. 대부분 영국인이었고 그 가운데 상당수는 스코틀랜드인이었습니다. 그들의 상회는 영국과 인도의 제조업자 및 상인을 위한 대리인으로 활동했으며, 화물의 운송과 보험을 처리했습니다. 미국 선박도 1820년대부터 싱가포르에 기항해 면제품과 정화(specie)를 가져오고 주석, 후추 및 그 밖의 산물을 실어 갔습니다.[11] 미국 무역상의 존재는 모든 국적의 선박에 열린 항구라는 싱가포르의 성격을 확인해 주었습니다. 미국인들은 아시아의 다른 영국 영토에서는 특권적 접근권을 갖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 2026 Dr Alexander Ressos. General information only, not legal, tax or investment advice. No client relationship is created. All Singapore law advice is provided by a duly licensed and regulated firm of Singapore advocates and solicitors only on the basis of an express written letter of engagement. More information at SingaporeIQ.com and ressos.com.sg.

# 주

1. National Library Board Singapore, “Bugis trade” (nlb.gov.sg, 최종 접속일: 2026년 9월): “most arriving with the angin timur (east wind) during a three-month period starting from around late August”, 11월 출항. ↩
2. National Library Board Singapore, “Bugis trade” (nlb.gov.sg, 최종 접속일: 2026년 9월): “Some 120 Wajo Bugis ships came to Singapore in 1825, while the previous year saw 90 ships”; 1830년대에는 “around 200 prahus visiting Singapore every year, each with a 30-strong crew”. ↩
3. 부기스 무역상이 가져오고 얻어 간 상품에 관하여 National Library Board Singapore, “Bugis trade” (nlb.gov.sg, 최종 접속일: 2026년 9월) 참조. ↩
4. National Library Board Singapore, “Bugis trade” (nlb.gov.sg, 최종 접속일: 2026년 9월): “In 1907, the Bugis fleet completely stayed away from Singapore”; 1973년에는 “only 20 Bugis ships had moored in Singapore for barter trade”. ↩
5. Wikipedia, “Arab Singaporeans” (최종 접속일: 2026년 9월): 1819년 팔렘방 출신의 부유한 상인 두 명 도착; “By 1824, there were 15 Arabs out of a population of 10,683”; 1871년 465명. ↩
6. Wikipedia, “Arab Singaporeans” (최종 접속일: 2026년 9월): “Trade in textiles, spices, property, and shipping allowed leading families to accumulate considerable fortunes.” ↩
7. Wikipedia, “Arab Singaporeans” (최종 접속일: 2026년 9월): “a member of the Aljuneid clan was appointed as a member of the mostly European-dominated Chamber of Commerce in 1837”. ↩
8. National Library Board Singapore, “First census of Singapore is taken” (HistorySG), 1824년 1월: 인도 출신 756명. ↩
9. Wikipedia, “Jackson Plan” (최종 접속일: 2026년 9월): 출리아 캄퐁(Chuliah Kampong)은 인도인을 위해 더 상류 쪽에 배치되었습니다. ↩

© 2026 Dr Alexander Ressos. General information only, not legal, tax or investment advice. No client relationship is created. All Singapore law advice is provided by a duly licensed and regulated firm of Singapore advocates and solicitors only on the basis of an express written letter of engagement. More information at SingaporeIQ.com and ressos.com.sg.

10. 19세기 후반부터 중요해진 싱가포르와 말라야의 체티아르 대금업자에 관하여 Rajeswary Ampalavanar Brown, *Capital and Entrepreneurship in South-East Asia*, Basingstoke, Macmillan, 1994 및 David West Rudner, *Caste and Capitalism in Colonial India: The Nattukottai Chettiars*,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1994 참조. ↩
11. 1820년대와 1830년대 미국과 싱가포르의 교역 및 1836년 설치된 미국 영사관에 관하여 주싱가포르 미국대사관이 발표한 미국·싱가포르 관계사와 C.M. Turnbull, *A History of Modern Singapore 1819–2005*, 제2장 참조. ↩

## Disclaimer

This article is provided for general information only. It is based on publicly available sources as at its date of publication. These sources have not been independently verified against licences, regulatory registers or the records of the entities concerned. It is not legal, tax, financial or investment advice. Nor is it a recommendation to invest in, transact with or use the services of any entity mentioned. Law and regulation change frequently, so the content may be incomplete or outdated. To the fullest extent permitted by law, Dr Alexander Ressos and the publisher of SingaporeIQ exclude all liability for loss or damage arising from the use of or reliance on this article. Readers should obtain advice on their specific circumstances before acting or refraining from action.

Names and trademarks of the entities discussed belong to their owners and are used for identification only. Their mention implies no endorsement, affiliation or allegation of wrongdoing. All Singapore law advice is provided by a duly licensed and regulated firm of Singapore advocates and solicitors only on the basis of an express written letter of engagement. Corrections and updates: contact@ressos.com.

© 2026 Dr Alexander Ressos. This article may be quoted with attribution to SingaporeIQ (SingaporeIQ.com). Reproduction in full and any commercial use require prior written consent. The Legal Terms at https://singaporeiq.com/legal-terms apply.

Author contact: Dr Alexander Ressos, TEP · contact@ressos.com